

오피니언

데스크 시각

정 후 식



“풍속이 소박하고 간략하니 종래부터 후했고, 산이 순수한 경기를 감췄으니 발설하기 더디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 40). 남으로 국사봉에서, 북으로 무등산에 이르기까지 전라도의 생명축인 호남정맥이 관통하는 화순(和順)은 예로부터 산수가 수려하고 인심이 후덕하기로 이름난 고장이었다. 그 덕분인지 2000년대 초반까지 너티재를 넘어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많아 광주의 베드타운으로 인기가 높았다.

지난달 2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완준 군수에 대한 당선 무효형이 확실하기 더디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 40). 남으로 국사봉에서, 북으로 무등산에 이르기까지 전라도의 생명축인 호남정맥이 관통하는 화순(和順)은 예로부터 산수가 수려하고 인심이 후덕하기로 이름난 고장이었다. 그 덕분인지 2000년대 초반까지 너티재를 넘어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많아 광주의 베드타운으로 인기가 높았다.

‘그들만의 리그’ 악순환 누가 끊을텐가

도 안 돼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후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잃었다. 이어 임 전 군수의 아내 이영남 전 군수가 2004년 보궐선거를 통해 군수가 되면서 ‘부부 군수’로 화제를 모았지만, 2006년 지방선거에서 전 군수의 형인 전형준 전 군수에게 패해 재선에 실패했다.

하지만 전형준 전 군수 역시 취임 할 달 만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군수직을 사임했고, 이어 처러진 보궐선거에서 전완준 군수가 당선돼 ‘형제

군수’로 유명세를 탔다. 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옥중 출마를 통해 재선에 성공했지만 역시 8개월만에 군수직을 잃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 고소, 고발이 잇따랐고, 형제와 부부까지 동원된 집안 간 반목과 갈등이 지속되면서 지역민의 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 무관심은 커져만 갔다.

그 패배는 고소란히 군민들이 떠안아야 했다. 2002년 이후 다섯 차례, 2년 가까이 부군수 권한대행체제가 반복되면서 화순군 행정은 정체상태를 면치 못했다.

세 차례 연속 재·보선이 치러지면서 재

존심에도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 대외 이미지 추락은 지역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발전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애물이 되고 있다.

원인제공자들 결자해지해야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군수의 새 관짜기 인사로 공무원들은 죽을 맛이다. 전임 군수의 역점사업은 방치되고 행정의 연속성은 차단되기 일쑤다.

지역의 심부름꾼을 뽑는 지방선거는 유권자와 주민들의 축제인데도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하고 있다.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최선은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결자해지하는 것이다. 자신들을 지지해준 유권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데 대해 ‘열치’를 지켜야 한다. 기득권을 지키려 무리없이 나서려 한다면 지역 갈등에 책임이 있는 민주당이 나서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 다른 정당도 제대로 된 후보를 내세워 더 이상 토호세력들이 선거관을 기웃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도 저도 안 된다면 유권자가 직접 나서 심판해야 한다. 개혁과 개혁을 꿈꾸며 천불천탑을 쌓던 정성으로 선거혁명의 노릇들을 놓아야 한다.

/정경부장 who@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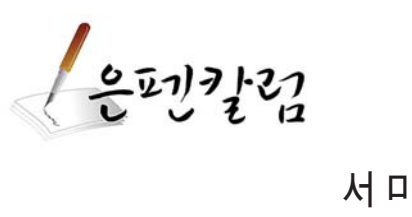
찢긴 민심 선거비용 눈덩이

그러나 수년 새 화순 민심은 판이하게 달라졌다. 온화하고 도터왔던 지역 분위기는 반목과 갈등으로 멍들고 갈기갈기 찢겼다. 7만8000여 명이 달했던 인구는 지난 2002년을 기점으로 매년 1000명가량 빠져나가 급기야 7만 명 선마저 붕괴됐다. 상당수 주민들은 그 원인으로 민선 단창장 선거 이후 군수 자리를 둘러싼 진흙탕 싸움을 꼽는다.

정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군수 재선거 비용은 8억1400만원으로 추산되며, 2006년 보궐선거때는 4억2000여만원이 지출됐다. 화순군은 열악한 재정현황에도 무려 15억원이 넘는,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셈이다.

지난 14일에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선물로 쇠고기를 받은 이 지역 유권자 32명에게 6000만원이 넘는 ‘패쇄로 폭탄’이 부과되기도 했다.

선거를 둘러싼 이진투구는 주민들의 자



서 미 정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음에도, 여전히 많은 장애인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위기상황에 놓인 지적장애인의 피해 구제와 권리보호를 위한 쉼터가 최근 문을 열었다. 노동력 및 경제적 착취, 감금, 폭행 등 인권유린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적장애인의 심리·사회적 안정을 지원 하는 곳이다.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장애인들이 받게 가해지는 폭력, 감금, 착취 등이 드러나며 세간의 관심을 일으키기도 했으나 이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기관은 많지 않다. 더욱이 긴급구제 후 장애인이 자발 없이 없는 등 체계적 보호시스템과 사후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장애인인권센터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게 되었고 현재 (사)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에서 쉼터기능의 지적장애인 그룹홈을 운영하게 되었다.

향후 쉼터는 효과적 구제시스템 정착을 위해 보다 다양한 의료, 법률, 사례관

지적장애인 ‘쉼터’에 관심

이들은 긴급구제 이후 개인특성에 맞게 학교생활, 직업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향함에 따라 쉼터는 일반 그룹홈보다는 약 2년여의 목표기간을 둔 다양한 자립생활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리 및 후원인 등 총체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구제 후 실질적인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기술교육, 직업생활 지원, 취업알선 기능을 강화하고 장애인 임대주택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거중심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를 ‘인권의 도시, 평화의 도시’라고 한다. 그리고 민선5기 시정구호는 ‘행복한 창조도시’ 건설이다. 최근 광주 시의회에서는 민주, 인권, 평화도시 광주에서 더 이상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인권이 보장되는 장애인중심의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발의 했다.

진정으로 사람의,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법제정이 되어 누구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권이 실현되는 그런 광주가 되기를, 희망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기대한다.

《(사)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 회장》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기 고

이 경 진



최근 일본에서의 초대형 지진과 연이은 쓰나미에 의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일본 열도뿐만 아니라 20개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인근 영광 지역에 6개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민들로서는 그 걱정이 더욱 크다 하겠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원전 기술을 보유한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우리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요구한다.

인류는 역사적으로 구 소련 체르노빌, 미국 드라마일 섬(TMI)의 두 차례

폭발에 의해 격납건물이 파손된 점은 TMI에서의 교훈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원전은 TMI와 동일한 가압경수형 원전으로서 최후의 안전방벽인 튼튼한 격납용기와 수소폭발을 방지하는 수소연소기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노심 내에 많은 냉각수를 보유하고 있어,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에 비해 노심용융이 느리게 진행되어 사고에 대처할 여유가 매우 크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 원전이 대형방사물질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

대형 원전사고를 경험한 바 있다. 일본은 과거의 원전사고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던 것일까? 겉보기에 유사해 보이는 체르노빌, TMI, 후쿠시마 사고는 내용적으로는 매우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체르노빌 사고는 사고발생 후 30초 만에 대형 핵폭발과 화재로 인해 순찰 거를도 없이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전 유럽으로 확산된 사고다. TMI에서는 사고발생 후 12시간이 경과된 후에 심각한 노심 손상이 발생하였으나 격납용기의 안전성으로 인해 대량의 핵물질 방출을 막을 수 있었다.

후쿠시마의 경우는 체르노빌과 TMI에 비해 사고의 진행이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 아직까지도 최악의 중대 사고를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들을 시행할 여지가 남아 있다. 또 수소폭발에 의한 격납건물의 손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원자로 격납용기의 건전성이 유지돼 대형핵물질 방출을 억제하고 있는 점은 불행 중 다행이라 할 수 있다.

TMI에서는 수소폭발에도 격납용기가 손상되지 않았는데 후쿠시마는 수소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최근의 자연재해 강도는 과거에 비해 훨씬 강력하다. 수만명의 사망자와 정유공장이 완전히 불타버리는 대형 자연재해의 와중에서 그나마 후쿠시마 원전이 체르노빌 사고 정도까지 확대되지 않는 것은, 역사적으로 높은 일본 원전 기술력과 과거에 비해 개선된 안전수준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우리가 매우 안전도가 높은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후쿠시마 사례에서 보듯 안전이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강력한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설비의 내구성은 과거보다 훨씬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시련과 위기는 새로운 기회이다.

TMI의 교훈으로부터 우리가 더욱 안전한 3, 4세대의 원전을 개발하였듯이 후쿠시마의 교훈으로부터 우리의 장점은 더욱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여 세계 제일의 원전 기술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때이다.

《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교통법규 잘 지키는 사람 대우받는 사회 됐으면...

얼마 전 승용차 운전도중 교차로 앞에서 멈춰서게 됐다. 옆 차선을 보니 초보운전 딱지를 붙인 여성 운전자가 긴장된 표정으로 맨 앞에서 서 있었고, 그 뒤에는 많은 차량이 줄지어 있었다.

그런데 얼마 후 직진 신호가 들어오기 전부터 뒤 차량이 경적을 울리기 시작했다. 차량도 오가지 않고 신호도 곧 바뀌는데 왜 출발하지 않는다는 질책이었다. 일부 운전자는 차장을 열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신호를 지키려고 했던 그 초보운전자는

줄지에 응통성없는 바보가 왜 버렸다. 얼마나 속상했는지.

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 운전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대부분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들을 다른 운전자들이 불법운전자로 만들어 버린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김기원·광주시 서구 세하동

시 설

도의원들의 후안무치한 ‘건수 채우기’ 발의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실적 쌓기를 염두에 둔 ‘의원 발의’ 조례안을 잇따라 내놓아 물의를 빚고 있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모두 9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나 이 가운데 상당수가 ‘건수’를 채우기 위해 자구 하나 바꾸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C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전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전부 개정 조례안’과 ‘전남도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명칭과 문구를 바꾼 게 전부지만 십여 명의 의원이 앞다투어 발의안에 서명해 ‘곰수’를 부렸다는 지적이다. 의원으로서 자격과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전남도 경관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전남도 민간자본 유치 촉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역시 기존 조례안을 약간 손봐서 발의한 것이라고 한다. 이들 조례안에는 해당 상임위는 물론 타 상임위 의원들까지 너도나도 서명했다고

하니 그야말로 한심한 노릇이다.

아무리 법안 발의의 건수가 의정활동 평가하는 잣대라고 하나 ‘눈 가리고 아웅’식의 건수 채우기는 분명 본분을 망각한 처사다. 일각에서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이 과연 법안이나 제대로 읽어보았는지 의문이 든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도의회는 지난달 일부 의원들이 회기 중에, 그것도 의정활동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외위상’ 관공을 다녀와 호된 비판을 받았다. 또 전·현직 도의원들의 친목단체인 의정동우회에 편법으로 5000만 원을 책정하려다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의원들의 후안무치(厚顏無恥)가 도를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이런 무책임하고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도의회의 고소란히 조합원에 약간 손봐서 발의한 것이라고 한다. 이들 조례안에는 해당 상임위는 물론 타 상임위 의원들까지 너도나도 서명했다고

광주 통합 RPC 비리 논란 진실 규명해야

광주통합RPC(미곡종합처리장)의 비리 의혹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 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는 21일 광주RPC를 검찰에 고발하고 업무상 횡령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RPC 측은 농민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맞서고 있다.

시 농민회는 “지난해 10월께 RPC 자체감사 결과 쌀 부족분이 5억5000여만 원어치에 달하고 감사과정인 지난해 12월 전 대표가 자살하는 일까지 생겼다”며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광주RPC는 부족분 쌀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지 않고 감사 결과를 덮었다며 공모 의혹까지 주장했다.

하지만, 광주 RPC는 “자체감사에서 부족분이 발생한 것은 도정수출 기준을 잘못 적용해 생긴 착오였고, 농협중앙회와 농림부 질의에서도 쌀 부족분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농민회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한 “자살한 전 대표도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겼다”

며 비리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RPC는 지난 2008년 광주지역 14개 농협이 출자한 법인으로 지역 조합끼리의 출혈 경쟁을 막고 농민들의 안정적인 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됐다. 사실상 농민 조합원의 소중한 공공재산인 셈이다. 따라서 횡령 등 비리 의혹을 덮어둘 수는 없다.

현재로서는 농민회와 RPC 양측 주장 가운데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다. 사법당국의 수사에 의해 사실 여부를 가리는 수밖에 없다. 논란만 커질 경우 그 피해는 고소란히 조합원에 돌아간다는 점에서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 진실을 가려야 할 것이다.

그동안 지역농협 RPC에서의 사고는 끊이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는 RPC의 경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차체에 광주·전남 모든 RPC에 대해 수사가 됐든, 감사가 됐든 정밀 조사를 벌여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거칠고 잔인하다는 해적의 세계이긴 하지만 가끔씩은 걸출한 여성 해적이 등장하곤 했다. 1720년 10월, 해적들의 낙원 ‘포르토 로얄’(Port Royal)을 공격하던 자메이카 총독은 치열한 접전 끝에 해적들을 제압했다. 당시 투항한 해적 중엔 놀랍게도 2명의 여성이 포함됐다. 당시 해적선을 공격했던 조나단 바넷 선장은 법정에서 “전투 당시 두 명의 해적이 강력히 저항했는데, 알고 보니 여성이었다”고 밝혔다. 앤 보니(Anne Bonny)와 매리 리드(Mary Read)가 바로 그들인데, 재판 과정을 취재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을 정도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지루한 결혼생활을 박차고 해적이 입문한 이들은 결국 교수형을 선고받았지만, 둘 다 임신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형집행이 면제됐다. 그 후 리드는 감옥에서 고열에 시달리다 숨졌으며, 보니는 종적도 없이 사라졌다.

중국에서는 정일수(鄭一夔)라는 여

성 해적이 유명하다. 1800년 초 해적끼리의 내분을 해결한 뒤 중국 해적의 지휘권을 거머쥔 정일(鄭一)의 아내로서, 기생이기도 했던 석강호가 바로 그녀다. 남평과 함께 해적연맹을 조직, 막강한 힘을 휘둘렀던 그녀는 남편이 죽은 후에는 양자였던 장보자(張保仔)와 부부가 되어 해적연맹을 장악한다. 현재적인 지략가였던 그녀는 청나라에 투항

한 뒤에도 재산을 빼앗기지 않고 고향인 광둥으로 돌아가 천수를 누렸다.

요즘 일본 대지진 사태로 인해 뒷전으로 물러난 느낌이 있지만, 상하이 주재 한국 외교관들이 중국인 여성에게 정보를 유출했다는 일명 ‘상하이 스캔들’의 주인공(鄭) 모씨 역시 예시 보나나 매리 리드, 정일수처럼 얼마 전까진 평범한 여성이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한 순간 표변(豹變) 할 수 있다는 점은 남성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만약에 보이는 이들 여성에게 그 같은 길을 가도록 만든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

/홍행기 정경부차장redplane@

여성의 표변(豹變)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업1간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회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채취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F A X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1부 50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